

신범수 개막 축포... 함평서 먼저 띄운 KIA 첫 승

KBO 퓨처스리그 개막
삼성에 5-3 승리
이범호 대타 출전...복귀 시동
임기준 승·박지훈 세이브

퓨처스리그에도 봄이 찾아왔다. 2019 KBO 퓨처스리그가 26일 개막했다. KIA 타이거즈는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지난 23일 KBO리그에 이어 퓨처스리그 개막전이 열리면서 챌린저스 필드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선수들은 '1군 진입'을 목표로 개막전에 임했다. 이날 경기에서 나서지 못한 잔류군과 재활군 선수들도 관람석에서 개막전 경기를 지켜보면서 파이팅을 외쳤다. 야구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평일이었지만 10여 명의 관중이 챌린저스필드를 찾아 응원을 보였다. 결과는 신범수의 홈런포 등을 앞세운 KIA의 5-3 승리였다. 신범수는 1회말 1사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삼성 선발 박용민을 상대로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기록했다. KIA는 3회와 5회 각각 1실점을 하며 1-2 역전을 허용했지만 5회말 오선우의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홍재호와 유민상의 적시타 등을 묶어 5-3 승리를 거뒀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귀국했던 이범호도 7회말 대타로 나와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마운드에서는 임기준이 승리투수가 됐고, 박지훈이 세이브를 기록했다. 선발 강인준에 이어 유승철-박경태-박정수가 잇달아 출격했다. 3-3으로 맞선 7회 2사에서 등판한 임기준은 1.2이닝을 피안타 없이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임기준은 팀이 7회말 공격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를 쟁겼다. 박지훈은 1이닝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2점차 승리를 지키면서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퓨처스리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사 작성 프로그램인 '케이봇'을 시즌에도 만나볼 수 있다. 또 KBO 퓨처스리그 앱을 통해 퓨처스리그 경기 일정과 경기 결과, 순위, 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함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범수가 26일 함평 기아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2019 퓨처스리그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0-0으로 맞선 1회말 1사에서 솔로홈런을 터트린 뒤 김창희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쾌상쾌' 사인회

사인볼·에코백 등 기념품 풍성
선수·코치진도 줄지어 사인받아

개막전 분위기를 띄우는 유쾌한 사인회였다.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은 26일 함평 기아 챌린저스필드에서 2019 퓨처스리그 개막전을 치렀다.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5-3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연 이날, 경기 전에도 KIA 선수단은 밝은 분위기로 특별한 사인회를 즐겼다. KIA는 이날 개막전을 맞아 챌린저스필드에서 투수 유승철, 박정수, 포수 신범수, 외야수 오선우가 참가하는 팬 사인회를 열었다. 사인회 부스를 마련한 KIA는 사인볼과 에코백 등 개막전 기념품까지 준비해 분위기를 띄웠다. KBO리그 선수들의 팬 사인회는 종종 열리지만, 퓨처스리그의 공식 사인회는 흔치 않다. 이색적이었던 KIA 퓨처스 리그 선수단의 첫 팬사인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평일 오후 1시 경기라 많은 팬이 자리를 하지 못했지만, 함평 나들이에 나선 KIA 팬들은 특별 이벤트에 기분 좋게 개막전을 즐겼다. KIA 선수들과 코치들도 줄을 서서 사인을 받는 등 선수단에도 즐거운 이벤트였다. KIA 관계자는 "이번 주 주말 경기가 없어서 평일 개막전에 사인회를 진행했다"며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많은 팬이 찾아주시는 주말 경기에서도 팬 사인회를 여는 등 KIA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류승현 새 신 신고 훈련... 김민우 코치 "타이어 교체 했네?"

▲신기했어요 = 막내는 막내였다. KIA의 고졸 루키 김기훈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유망주다. 나이답지 않은 배짱과 묵직한 작구가 장점이 그는 5선발로 낙점받았다. 하지만 그는 앞서 지난 24일 LG전에서 불펜 투수로 프로 무대를 경험했다. KIA는 적응 차원에서 개막 시리즈에서 중간 계투로 김기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고, 이에 따라 김기훈은 불펜투수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결과는 1.1이닝

4볼넷 1탈삼진 1실점. 씩씩한 김기훈에게도 긴장감 가득했던 첫 등판이었다. 김기훈은 "관중이 많아서 느낌이 달랐다. TV에서 보던 구장에서 던지는데 신기했다"며 "상대 타자들이 어떻게든 치려고 하는 모습이였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첫 등판 소감을 밝혔다. ▲느낀 바가 클 것이다 = KIA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제이콥 터너는 첫 등판에서 5이닝 8실점(7자책점)의 성적표를 내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시범 경기와는 다른 결과가 아쉬웠지만 김기태 감독은 "좋은 보약이 됐기를 기대했다. 김 감독은 26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가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1회 좋은 카운트에서 변화구가 맞아 나가니까 당황한 것 같다"며 "느낀 바가 클 것이다. 한국 야구도 보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김 감독은 "그 와중에 5회까지 소화해줬다. 바꿔줄까도 생각했는데 팀을 위해서 더 던지겠다고 했다"며 터너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좋은 점수를 줬다. ▲타이어 교체했네? =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다. KIA는 26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교체했다. 내야수 최정민을 빼고 대신 또 다른 류승현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수비 훈련

시간에 김민우 수비 코치는 새 신을 신고 뛰는 류승현을 보고 "타이어 교체했네?"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김기태 감독은 류승현의 콜업에 대해 "한화전 타율이 좋다. 선발 출전까지 고려했는데 시즌 초반이니까(기존 라인업대로 경기를 하기로 했다)"라며 "한화 강세" 류승현의 활약을 기대했다. 류승현은 지난해 한화전 6경기에서 나와 19타수 9안타, 타율 0.474와 8타점을 기록했다. 류승현은 "한화전에 운이 많이 따랐다"며 "팀에 보탬이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결방' NC·KT 야구경기 인터넷·모바일로 본다

오늘까지 네이버·카카오·올레TV모바일 등 5개 플랫폼

TV 중계 편성에서 빠진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kt wiz의 경기를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NC는 "26일 경기에 이어 27일 오후 6시 30분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는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인 통신·포털 컨소시엄의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고 26일 안내했다. 네이버, 카카오, 올레TV모바일, U+모바일tv, 옥수수 등 5개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NC와 kt의 경기를 중계한다. 이 경기는 케이블 방송에서는 볼 수 없다. 스포츠채널 채널 KBS N 스포츠가 26~27일 프로야구 경기 대신 프로배구 남녀부 챔피언결정전을 생중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BS N 스포츠는 28일 NC와 kt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는 중계한

다. KBO와 NC는 야구팬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KBO리그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 사업자로 선정된 통신·포털 컨소시엄과 협의해 중계를 끌어냈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는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아직 우선협상자 지위에 있지만, 뉴미디어 중계권 권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모바일 중계는 통신·포털 컨소시엄이 제작과 중계를 모두 담당한다. 프로야구의 뉴미디어 중계 첫 사례다. NC는 시범경기 때처럼 자체 중계를 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정규시즌이 개막한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MLB 개막전 선발투수 랭킹 19위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닷컴이 오는 29일(한국시간) 열리는 메이저리그 미국 개막전을 앞두고 선발투수 랭킹을 발표했다. 야후스포츠는 선발투수 랭킹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과거 성적에 기준으로 주관적인 랭킹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사상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개막전 선발투수로 나서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은 전체 30명 중 19위에 올랐다. 야후스포츠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그동안 개막전을 도맡았던 클레이튼 커쇼가 부상으로 빠졌고 리치 힐과 워커 볼러도 당분간 나서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개막전 선발투수 중 전체 1위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 맥스 셔저다. 지난 시즌 18승 7패, 평균자책점 2.53, 탈삼진 300개를 기록한 셔저는 개인통산 3차레나 사이영

상을 받은 경력을 인정받았다. 랭킹 2위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간판 크리스 셰일이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월드시리즈 최종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마무리로 나섰다. 셰일은 올 시즌 첫 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선다. 랭킹 3위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저스틴 발렌더, 4위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뉴욕 메츠의 제이컵 디그롭이다.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잭 그레이빈기는 랭킹 8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스 매디슨 범가너는 9위다. 뉴욕 양키스의 제1선발 루이스 세베리노가 부상을 당해 대신 개막전에 나서는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는 10위에 올랐다. 전체 30명 중 랭킹 최하위는 23세로 가장 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브래드 켈러가 꼽혔다. /연합뉴스